

■ 교육부의 <2028 대입 부산 설명회>에 앞서 대입 시안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 예고보도 (2023.11.8.)

11/10(금), 교육부의 2028 대입 부산 설명회에 앞서 시안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합니다.

2028 대입 시안 철폐 촉구를 위한 전국/영남권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등 52개 단체(참여 단체 명칭은 하단에 표기)는 11월 10일 **금요일 오후 1시**, ‘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부산 설명회’가 열리는 **BNK부산은행본점 앞에서** 교육부 2028 대입 시안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합니다.

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에 ‘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’, ‘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(국어,수학, 사·과탐 상대평가) 및 통합형 과목 체제로 개편’, ‘심화 수학(미적분2+기하) 신설 검토’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10월 25일에는 대전에서, 10월 30일에는 서울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. 우리는 이 시안의 확정 시 고교학점제 무력화, 사교육 폭증, 경쟁교육 고통 심화 등을 심히 우려하며,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과정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교육부가 2028 대입의 방향을 확정짓는 중요한 논의에 당사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귀기울이고자 하는 절차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. 이에 52개 교육·시민단체는 **부산 설명회장 앞에서 교육부 설명회 및 학부모 의견이라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밝히고, 특히 2028 대입안으로 예상되는 지역격차의 문제를 밝힐 예정입니다. 또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반드시 철폐되어야만 하는 이유, 데이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**

부산 지역 기자회견 및 집회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정책은 과연 무엇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. 교육개혁이 추진되기를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<기자회견 및 집회 안내>

- 행사명 : 교육부 2028 시안 철폐를 요구하는 영남권 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
- 일 시 : 2023. 11. 10.(금) 오후 1시~2시
- 주 관 : 2028 대입 시안 철폐 촉구를 위한 전국/영남권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
- 장 소 : BNK부산은행 본점 앞
- 내 용 : 연대 발언, 기자회견문 낭독, 퍼포먼스(입시 경쟁의 고통을 겪는 학생의 호소)
- 문 의 :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(02-797-4044, 내선501)

2023. 11. 8.

<참여단체: 총 52개 단체>

- [경남] 김해여성의전화,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(거제제회, 김해지회),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, 김해교육연대,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, 거제교육연대, 전교조경남지부, 경남참교육동지회, 우리교육공동체,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, 진주교육공동체 결, 행복학교학부모어울림
- [경북] 전교조 경북지부, 경북교육연대, 경북혁신연구소 공감,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(경주지회, 구미지회, 상주지회, 포항지회)
- [대구] 전교조대구지부,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,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,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,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,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이보라, 비정규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,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
- [울산] 전교조울산지부,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,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, 울산여성회,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 울산교육연대,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, 울산인권운동연대,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, 서로나눔학부모네트워크
- [부산]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, 전교조부산지부,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,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, 부산다행복학교학부모네트워크,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, 부산여성회,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지회, 부산학부모연대, 청소년인권연대 이수나로, 연제가족도서관, 노동인권연대,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, 부산참보육부모연대,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
- [전국] 사교육걱정없는세상,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,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